

부동산 의혹·혐지 출마 당권주자 치열한 난타전

국힘 전대 광주서 호남 합동 연설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만큼 보수 불모지인 광주에서도 연설회장 주변은 '붉은 물결'을 이뤘고, 응원전도 치열했다.

이날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는 전남 첫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 제기한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안철수 후보도 가세하면서 협공이 펼쳐졌다.

이에 김 후보는 거침없이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안 후보가 승부수로 내건 '총선 승리 후 사퇴' 선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다. 다음 당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집중 공격했다.

안 후보는 또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김기현 후보에게 묻는다.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와 내년 총선 승리를 결정하는 민심을 생각하는 후보의 대결"이라며 "다음 총선은 민심을 두렵워하고, 확장성 있고, 용기 있는 당대표가 이끌어야 승리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나"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1등 후보는 1등 후보인 모양"이라면서 "없는 말,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인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과거 민주당에 몸 담았던 안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일을 하지, 살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살겠느냐"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싸워서 이긴 사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후보 나오신 분 중에 제가 유일하다"며 내세웠다.

황 후보는 "우리가 좌파 정권에 한 번 더 뺏기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까. 공산화되는 것"이라며 "30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힘을 모아야 한다.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호남에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다"고 약속했다.

전하람 후보는 "민주당이 호남, 전라도당이라고 하면서 매년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서 이기기 위해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남을 핵심지역으로 삼아 전국 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 간 공방은 장외로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가 총선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총선 때 자기 사람 다 심어 놓은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 '대권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핑계를 쓰는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시스템들만 잘 정비하고 체계를 정비하고 한 다음에 실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걸 의문 삼는다는 말은 본인은 실제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그 말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황교안·전하람·안철수·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지도부 들어서야”

호남출신 조수진 국힘 최고위원 후보

국민통합과 개혁 앞세워 최선 고향 호남 위해 누구라도 만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조수진 의원은 16일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해야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3·9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냈고, 이어 6·1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를 해냈지만, 여전히 국회 의석수는 야당이 압도적이어서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호남이 뒷발이라고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호남 출신 지도부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남의 딸'이 여당 지도부에 입성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고 호남의 어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 차기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 제2당인 만큼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제1당이 되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의 구상이 정책화되고 법안화되어야 하는 데, 거대 야당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크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을 회복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되는 '당정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친윤' 현역 의원들 중 홀로 생존했다는 평가가 있다.

▲홀로 생존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최고위원 예비후보 13명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비윤'은 2명 뿐이다. 최고위원 선



- 조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세우는 비전은 무엇인가.

▲저의 비전은 국민통합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일성으로 내세우셨다. 국가가 어려울 때 DJ 대통령이 했던 업적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도 앞으로 진행과정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국민통합과 개혁을 비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친윤' 현역 의원들 중 홀로 생존했다는 평가가 있다.

▲홀로 생존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최고위원 예비후보 13명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비윤'은 2명 뿐이다. 최고위원 선

거의 경우 당원 1명이 2표를 행사했는데, 친윤 후보가 많아서 표의 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언론 분석이다.

- 전남 무소속 단체장들과의 연대가 끈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라면 무소속뿐만 아니라 당적과 관계없이 모두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당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소속의 경우 기댈 수 있는 현역의원이 없으니 제가 활동이 좀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고향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제가 여당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것도 고향인 호남에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기 위해서다.

-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떻다고 보나.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저는 지난해 일주일에 2~3일씩 호남 전역을 돌아다녔다. 가뭄현장과 예산을 요구하는 지역을 돌아보며 지방의원들과 소통을 했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실과 부처에 건의해서 본 예산이나 교부금 지원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래서 인지, 호남 지역에만 가면 저를 환영하는 플래카드 등이 나뉜다. 주민들도 많은 환영을 해주신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서 의미있는 득표율을 올렸다. 노력하면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대선 이후 호남 민심은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인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섰고, 예결위원회도 들어가서 호남 예산을 찾는데 노력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도부는 중앙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론조사 3개 김기현·안철수 오차범위 혼전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당 대표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엇지락뒤지락하고 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1387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6포인트)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41.2%), 안철수(24.6%), 전하람(13.4%), 황교안(12.6%)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 후보 50.8%, 안 후보 38.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는 전하람 후보가 24.1%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안철수(23.5%), 김기현(22.1%), 황교안(8.1%) 후보 등의 순이었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 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응답률은 3.2%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의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 안 후보가 30%로 김 후보(26%)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9%p) 내에서 앞섰다. 황 후보는 8%, 전 후보는 6%였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는 안철수(23%), 김기현(11%), 전하람(11%), 황교안(5%) 후보 등 순이었다. '없다+모름/무응답'은 4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응답률은 21.4%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